

최악 폭염에 '열 받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보

광주·전남 28일째 폭염특보...햇빛·빗물 발화 원인 재산 피해·인명 대피 소동...소방 "안전수칙 준수"

살인적인 무더위로 사실상 '냉방기기 24시간 가동'이 일상화된 가운데 야외에 노출된 실외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광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연일 한낮 최고기온이 31~34도를 기록, 평년기온(28.1~30.4도)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지만 더위는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밤 사이(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켜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문제는 외부에 노출된 냉방기기 실외기가 햇빛이나 빗물 등 요인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9일 광주 북구 문흥동 A아파트 1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8분 만에 불을 모두 꺾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수십명이 집 밖



지난 29일 광주 북구 문흥동 A아파트 1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로 대피했고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세대 내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에어컨 실외기 등 정확한 발화점 등 화재 원인을 조사

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도 15층 규모 건물 10층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95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1분 만에 완

진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화재로 건물 사무실 내 일부 물품이 불에 타고 건물 외벽이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 분석한 결과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주로 7~8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1~2023년 총 68건의 실외기 화재 중 28건(41.1%)이 7~8월에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꽂초·전선 단락·과열 등 부주의가 48.5%(33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48.5%(33건), 기계

적 요인 7.3%(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당국은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자율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예방수칙은 △전선이 손상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는지 점검 △에어컨 내 먼지 제거와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 △시간 설정 기능 활용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 사용 △에어컨 실외기 통풍 가능한 곳에 설치 △실외기 주변 깨끗하게 유지하기 등이다.

광주소방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에어컨 등 냉방기기에 대한 관리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북구 골목형상점가, 시의회와 '협력'

4일 골목상권 현장투어 실시

광주시의회와 광주 광산구·북구 골목형상점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31일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에 따르면 오는 4일 광주 광산구 첨단1동 미란광장(쌍암동 666-11)에서 민생살리기 골목상권 현장투어가 진행된다.

광주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현장투어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몽룡 광산구 골목형상점가연합회 회장, 양충호 북구 골목형상점가연합회 회장, 박형국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 회장을 비롯해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외식업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골목상권 지원·활성화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를 다니며 회원,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 불편·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박형국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 회장은 "지난 8월23일 광산 골목상권 활성화 축제를 개최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현장투어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풍선마술 공연 지난 30일 광주공원 청춘빛포차광장에서 열린 '청춘버스킹'에 온 시민들이 풍선마술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하이브리드 식생 포장 Hybrid Vegetation Pavement



- ▶ 천연펄프를 주재료로 사용 친환경제품
- ▶ 매우 가벼운 소재로 시공이 간편
- ▶ 소규모 현장 설치가 용이 (중장비 불필요)
- ▶ 프리캐스트콘크리트블록과 달리 하자 미발생
- ▶ 기존 잔디블록과 비교하여 경제적
- ▶ 주차장, 인도, 산책로, 변방 등에 적용 가능

강재 틀러 가이드레일 SB4.5등급 (강도리)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고 충격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켜 대형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음



"세계 최초 개발한 강재 틀러 가이드레일"

인터페이스 곡선도면 터널 입구

본 사 1(광명) 전남 원형군 학교면 학교길 35 사 무 소 2(광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동신당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ES)로 172 한림유엔타워10층 115호 Tel.031)476-8504

'간호사 교대제 개선' 광주·전남 병원 5곳 참여

전남대병원·광주기독병원·광주보훈병원·목포한국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병원 5곳이 9월부터 보건의료부가 확대 운영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의 도모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에 시작했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체 간호사,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4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엔 누적 96개 기관, 397개 병동이 참여했으며, 사업 전과 비교해 간호사의 근무 계획 준

수율은 94.7%에서 98.3%로 높아지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5.7%에서 10.6%로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9월부터 운영되는 2차 시범사업 기관에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중인 병원 70곳과 신규-재참여 병원 24곳이 선정됐다. 1차 때는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했으나 2차에선 병원의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1차 사업 수행 중인 병원의 경우 연말까지 1차 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 간호사 인건비 지원 기준은 1차

때의 상급종합병원 3977만원, 종합병원 4545만원에서 각각 4096만원, 4681만원으로 약 3% 올랐다.

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취약지역과 군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참여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인건비도 10% 가산 지급한다.

이중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3곳이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화산전남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등 2곳이 참여한다.

박해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2028년 본 사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지난해 인구대비 식중독 '전국 3번째'

살모넬라, 제1 원인균 분석

지난해 광주지역 인구 100만명당 식중독 환자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인구 100만명당 식중독 환자는 222명으로 산출됐다.

이는 전북(698명), 제주(301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단순히 식중독 환자수로만 비교해보면 광주 315명이었다. 경기(1898명)가 가장 많았고, 전북(1223명), 서울(795명), 경남(712명), 부산(649명), 충북(329명) 순이었다.

지난해 전남지역의 100만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57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울산(28명), 인천(35명), 대전(44명)에 이어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 식중독 환자 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울산(31명), 세종(36명), 대전(64명)에 이어 적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식중독 발생건수, 환자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265건, 환자수는 762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6%(359건), 13%(8789명) 줄었다.

지난해 식중독은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는 7~9월에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고, 최근 여름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주원인으로는 살모넬라 원인균이 지적됐다.

지난 3년간(2021~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살모넬라가 제1의 식중독 원인

균으로 분석됐다.

실제 2021년 32건이었던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2년 44건, 2023년 48건, 지난해 58건으로 폭증했다.

살모넬라균은 날 닭고기와 같은 제품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될 수 있으며, 잘못된 식품 취급 방법을 통해 식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달걀 껍질에서 다른 식품으로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달걀을 만진 후에 반드시 세제 등을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고,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9월에도 식중독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소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